

'가을 태풍' 광주·전남 영향권 들까

태풍이 올해 가을에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이 태풍 영향권에 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9월 이후 발생하는 가을 태풍은 여름 태풍만큼이나 큰 피해를 남겼던 것으로 집계돼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국가태풍센터에 따르면 올가을(9~11월)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평년(1981~2010년)과 비슷한 수준의 태풍이 발생해 1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엘니뇨 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태풍의 발생위치가 남동쪽으로 치우쳐지면서, 태풍이 우리나라로 직접 항할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지난 태풍 '솔리'의 영향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가 약화되는 등 기압골의 변동상황에 따라 한반도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달해 고수온의 바다를 오랜 시간 거친 태풍이 많은 수증기를 공급받게 된다

이후 중형급 이상으로 충분히 발달한 상태에서 한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30년(1988~2018년)간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영향을 준 태풍은 47개였다

이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9개의 태풍이 가을인 9월과 10월에 발생했다

9월에만 16개의 태풍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이어 8월 5개·7월 11개·10월 3개·6월 2개 순이었다

가을 태풍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 큰 피해를 남긴 태풍도 많았다

지난 2012년 9월5일부터 같은달 17일까지 '산바(SANBA)'는 광주·전남에 이재민 113명과 주택·농경지 침수와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물 파손의 피해를 남겼다. 총 피해 금액은 22억469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산바'로 인한 재해복구비는 559억1900만원에 이르렀으며, 여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앞서 2010년에는 가을 태풍 '곶파스(KOPASU)'가 9월1일부터 같은달 3일까지가 신안·무안 등 전남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인 피해를 남겼다. '곶파스'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69억608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재해복구비 142억7700만원이 투입됐다

10월 태풍으로는 이례적으로 영향을 미친 '차바(CHABA)'는 2016년 10월3일부터 나흘동안 전남 지역에 67억4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

올가을 한반도에 태풍1개가 지날 것으로 관측 광주·전남 영향 미친 태풍 중 40%가 가을 태풍

를 입히기도 했다. 피해 복구액에만 108억4845만원이 투입됐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가을 태풍

은 수와 피해 규모 면에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다"면서 "해수면 온도가 가장 높아진 9월 들어 수증기 유

입이 늘고, 기압골 변화로 인해 가을철에 태풍이 강하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풍 기상예보에 늘 관심을 갖고 사전에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남규 기자



추석 앞두고 벌초 추석을 2주 여일 앞둔 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현충원 관계자들이 벌초 작업을 하고 있다.

'폭삭 내려앉고 꺼지고' 장성 땅꺼짐 11년 만에 원인규명 착수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일대 농경지에서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원인 모를 '대형 땅꺼짐(싱크홀)' 현상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용역조사는 고려시멘트가 운영하는 지하 석회석 채굴용 건물광산이 소재한 황룡면 와룡리 일대 농경지에서 지난 2008년부터 잇따르고 있는 싱크홀 발생으로 제기된 주민 집단민원 해결과 지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추진된다

6일 '황룡 와룡 농경지 지반침하 조사'를 위한 민(황룡주민 대책위)·관(장성군)·사(고려시멘트) 협의회가 용역조사 업체로 선정된 전남대학교 해외자원개발연구소는 본격적인 용역조사 착수에 앞서 용역조사 보고회를 가졌다

전남대연구소는 이날 황룡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민·관·사 위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용역조사 목적·범위·방법·기간' 등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했다

고려시멘트 측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용역조사는 이달부터 착수해 오는 2019년 8월까지 착수일로부

터 1년이 소요된다

전남대연구소는 이 기간 동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와룡리 일대 과업대상 농경지(가로 200mX세로 150m) 일원을 중심으로 전기 비저항 탐사, 시추조사, 시추공 내 촬영, 수리조사 추진 등을 통해 싱크홀 발생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시추 조사는 약 50m 깊이로 뚫은 시추공 8개를 통해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 이상 지점으로 추정되는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지하 파쇄대(단층)을 따라 암석이 파괴된 띠 모양의 부분과 공동(빈 공간) 유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이 싱크홀 발생 원인으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석회석 채굴용 건물광산 광도 내 지하수 배수랑과 와룡리 일대 월별 강우량을 비교하는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착수일로부터 1년간 진행될 이번 용역 조사의 결과가 담긴 최종 보고서는 내년 8월께 나올 예정이다

황룡면 주민대책위는 용역조사 결과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농경지

싱크홀 현상이 광산 채굴에 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지반 안정화 공사 또는 농지매입 등을 고려시멘트 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황룡면 와룡리 일대에서는 지난 6월 호남고속철도와 150m 떨어진 농경지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싱크홀이 또 발생했다. 농경지 싱크홀 발생은 지난 2008년부터 누적 횟수는 6번째다

문제는 농경지 외에도 뉴시스의 계속된 '호남고속철도 안전성 우려 보도' 이후 철도시설공단이 지하 시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4월5일 호남고속철도 와룡전교 지하 23~31m 지점에서 '800㎡ 규모의 땅속 공동(빈 공간)이 발견돼 논란이 됐다

당시 발견된 지하 공간은 레미콘 133대 분량(1대 6㎡)으로 메워야 할 정도로 큰 규모였다

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 안전운행과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4월26일부터 5월21일까지 땅속 빈 공간에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채워 넣는 보강공사를 했다

조인호 기자

강진서 SUV에 80대 치여 숨져

6일 오전 5시47분께 강진군 성진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A(51) 씨가 몰던 SUV차량이 도로 위에 서 있던 B(80·여) 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 씨가 숨졌다. 사고가 난 지점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중고거래 사이트서 물품 사기 30대 영장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6일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려 현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인형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B(16·여)에게 2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잡적하는 등 최근 까지 같은 수법으로 84명에게 1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로 의류기기, 스피커, 콘서트티켓, 향수 등을 시세보다 10%가량 싸게 판매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 경찰서 간부 부하직원에게 갑질 의혹

부산의 한 경찰서 간부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부산경찰청이 경위를 파악 중이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갑질과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모 경찰서 소속 A(35) 경감을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경감은 부하 직원 3명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A경감이 성희롱 발언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A경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피해자 보호와 서로 간 업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A경감을 다른 경찰서로 인사 조치했다"면서 "관련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사기극 벌인 50대들

일부러 차량에 팔을 갖는 등 고의 교통사고를 저질러온 동남해기 친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광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전모(52)씨, 김모(52)씨, 김모(2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전씨와 김씨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사이로, 20대 김씨는 50대 김씨의 조카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5월24일 오후 9시에 한 골목길에서 전씨는 지나가는 화물 탑차의 집간 왼쪽 부분에 자신의 팔을 가져다 댔다. 친구 김씨는 목격자인 척 하며 운전자에게 알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인 뒤 보험금 75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광진구 주택구 주택가 일대에서 총 9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 모두 868만8490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청주서 투자 실패 20대 여성 스스로 목숨 끊어

충북 청주에서 가상화폐와 주식에 수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화단에 A(26·여)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화단에서 발견된 A씨의 가방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구겨진 채 들어 있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가상화폐(비트코인)와 주식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수천만원의 빚을 져 채무복속해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해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